

주체조선의 국방력 일대 과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순천시당위원회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순천시당위원회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가 22일에 진행되였다.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와 순천시의 일군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오동진 순천시당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55(1966)년 6월 23일 순천군당위원회(당시)를 주소 찾으시어 당시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서 수령님께서서는 군당위원회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일군들이 당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며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확실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군당위원회를 찾으시어 당일군대원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 사람들로 꾸리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사업에서 풀이해나가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순천시의 당사업에서 혁명적전진이 일어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한층 단단히 하는 용언으로 전진해나가기에 이르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풀이하고 현실적으로 두정함으로써 순천시가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한층 단단히 하는 용언으로 전진해나가기에 이르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

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불고나가며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하겠소니다.》

보고자는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불고나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지침으로 삼고 일군대원을 잘 꾸리며 당일군대원을 근로본적으로 개선해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이 당사업에서 남은 것을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전민적으로 구현해나가기 위하여는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말씀하신 당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며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확실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곳따라에서 우리 당의 혁명정신이 맥박치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떠오르게 하여야 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전력과 석탄생산을 결성적으로 높이고 주체농민의 요구대로 과학농사, 다수확농사업종을 일으켜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며 남새농사와 버섯, 양어, 축산가축들을 활성화하여 인민들이 살기 그럭 보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시인의 지방공업공장들을 개선시키고 생산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야 하며, 일터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가야 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보고자는 시인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말씀하신 당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며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확실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비 평양시인민보안국에 전립

혁명사적비 《빛나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여》가 평양시인민보안국에 전립되였다.

평양시안의 인민보안기관들에서는 주체적인민보안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뜨겁게 기념하였다.

시인민보안국안의 인민보안원들과 중앙원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하여 길이 전세할 영광의 한마음으로 헌사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시인의 지방공업공장들을 개선시키고 생산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야 하며, 일터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가야 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보고자는 시인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말씀하신 당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며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확실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비식 사회주의제도를 결사보위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인민보안원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34(1945)년 9월 25일을 비롯하여 수십차례나 평양시안의 보안기관들을 찾으시고 인민보안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수도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세나 수도의 인민보안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보안기관들에 거룩한 영도의 자욱을 주셨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비를 평양시인민보안국에 전립하시였다.

장원호 조선인민내무군 정치주장이 훈포장을 하였다.

연립자는 평양시인민보안국에 혁명사적비를 전립한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관철에서 모범이 되도록 세심의 보살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인민보안사업의 방향과 방도들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평명한 내성교향보안원들을 보내주시어 인민보안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경성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했다.

연립자는 모든 인민보안원들과 내무군장병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길을 남가롭게 버려 혁명의 수비부를 결사옹위하고 당과 제도, 인민을 굳건히 보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보안기관에 주신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이, 한결같은 양보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복속으로 사수하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창조된 수령보위의 영광스러운 진군을 이어경애하는 원수님을 헌신적일대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온전히 풀이하고 인민보안사업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돌격구를 열어제끼는데 적극이바치기 위하여 하겠다고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이 바라는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야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일으켜 인민보안원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무의방패, 붉은 맹수로 만든다. 혁명사적비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훈포장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혁명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비를 돌아보았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자

평양곡산공장 종업원들의 련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곡산공장 종업원들의 련기모임이 22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조급당위원장 김민준의 보고에 이어 지대인 박형철, 직장장들인 김석일, 피영철, 로동자 조용휘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곳은 남색도 아깝지 않고 공장에 거룩한 영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공장의 현대화향상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이 바라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이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곡산공장에 주체회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지역사회의 창조대전에서 본보기로 내세울만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파사적인 공장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어 인민중시, 인민

존중,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 갈것이라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은 생산성과로 만들어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조급당위원장 김민준의 보고에 이어 지대인 박형철, 직장장들인 김석일, 피영철, 로동자 조용휘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대로 식료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공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영방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총성의 200일 전투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져올릴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길잡이 되고 더 힘차게 일터에서 일하는것을 명심하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 원로, 지재의 국산화를 철저히 실현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설비들을 주안다음 힘에서 예로 관리하고 민부하로 돌려생산성향화의 동용을 세차게 올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기술기 능수준을 무던히 높이고 생산문화, 생활

문화회화사업을 더욱 잘하며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총성의 200일전투에 펼쳐나선 생산자대중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도록 해나갈데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는 편지가 재워졌다.

녀맹일군들과 녜맹원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녜맹원들과 녜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가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였다.

답사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과 보천보혁명전적지, 영봉봉수역, 무산지구전투승리 기념탑, 삼지연못가에 놓여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백두산 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봉수의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력사의 땅 보천보에서 그들은 보천보전투지휘, 경찰관주재소, 민사부소 등을 돌아보면서 보천보전투를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항일혁명투쟁사

를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보시리샘물터와 증용봉관을 거쳐 청룡수역지, 전향봉영지를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전투의 결에서 남긴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혁명사적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백두산밀영고향집터에 돌아선 그들은 백두평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으로 돌리시어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어린시절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을 보여 이바지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격정을 금치 못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전적지의 장쾌한 전경과 아득한 밀림을 바라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군시대 내성혁명가로서의 사명

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삼지연대기념비의 무주제군상을 삼지연못가의 혁명사적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절세위인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사들이 발휘한 투쟁의 수명철사용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가슴깊이 새두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진 삼지연의 어려움을 돌아본 답사자들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판과 배방을 전심전력 전하고있는 고무경비도령을 따라 행군하여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참관하였다.

답사기간 그들은 백두산영웅 청년발전소를 참관하였으며 회상기발모임, 시랑송발모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